

용산역사박물관

사업개요	사업 전체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 : 『용산역사박물관』 건립 - 기간 : 2018. 1. ~ 2022. 3. (※ '22. 3. 23. 개관) - 위치 : 舊 용산철도병원(한강대로14길 35-29) - 규모 : 연면적 2,275.52㎡(지상2층) - 내용 : 일제강점기 용산철도병원(1928, 등록문화재)을 리노베이션하여 박물관 조성 - 총사업비 : 30,740백만원(공공기여사업) - 주요시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층별</th> <th style="width: 15%;">연면적(㎡)</th> <th style="width: 75%;">세부시설 용도</th> </tr> </thead> <tbody> <tr> <td>지상 2층</td> <td style="text-align: center;">1,034.90</td> <td>· 기획전시실, 기증자실, 다목적실, 교육실, 사무실, 테라스 등</td> </tr> <tr> <td>지상 1층</td> <td style="text-align: center;">1,240.62</td> <td>· 상설전시실, 아카이브미디어월, 수장고, 카페, 수유실 등</td> </tr> </tbody> </table> <p>※ 옥상공원 조성(움튼가든, 용산가온뜰, 용산그랑마당)</p>	층별	연면적(㎡)	세부시설 용도	지상 2층	1,034.90	· 기획전시실, 기증자실, 다목적실, 교육실, 사무실, 테라스 등	지상 1층	1,240.62	· 상설전시실, 아카이브미디어월, 수장고, 카페, 수유실 등	<p>용산은 100년의 세월을 나라의 아픔과 함께 성장한 땅으로 글로벌한 역사의 현장입니다.</p> <p>중앙대 용산병원 이전 후 10여년간 방치되어 있던 『용산철도병원』은 용산의 지역성과 역사성, 장소성을 품고 있으며, 용산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등록문화재이자 근대 건축물로서,</p> <p>각종 도시계획 및 개발 등으로 사라져가는 용산의 유물과 사료들을 보존하고 기록할 수 있는 최적의 박물관 건립부지로 판단하고 리노베이션 공사를 거쳐 『용산역사박물관』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p>
층별	연면적(㎡)	세부시설 용도								
지상 2층	1,034.90	· 기획전시실, 기증자실, 다목적실, 교육실, 사무실, 테라스 등								
지상 1층	1,240.62	· 상설전시실, 아카이브미디어월, 수장고, 카페, 수유실 등								

작품에 대한 심사위원단 주요의견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닌 일제강점기 시절의 건물을 역사박물관으로 활용하는 것은 보편적 행위일 수 있으나, 건축적 이미지를 보존하고 이를 아카이브적 성격으로 재구성한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또한, 이를 위한 지자체의 결정과 진행 과정은 매우 인상적이다. 건축적 의미에서 보존과 복원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사건의 전개를 건축가는 치밀하게 남기고 이를 전시하고 있어서 시대적 상상력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